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5)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관하여

제 3 장 4항

이와 같이 미리 결정이 되고(predestined) 미리 규정이 된(preordained) 까닭에 이러한 천사들과 사람들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효는 일정하며 한정이 되어 있어 그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불변성

“개별적인 특정한 사람 자체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예정은 변치 않아”

제3장 4항이 설명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러한 예정은 단지 예정된 수효의 전체 범위만 일정한 수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효에 포함이 되는 대상이 각각 개별적으로 불변(不變)하게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예정한 천사들과 사람들의 수효는 그 범위가 일정한 수로 한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3장 4항은 비록 짧은 고백이지만 예정론과 관련하여 개혁신학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들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를 보여주는 매우 핵심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론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정의 전체 수효나 그 수효에 포함이 되는 특정 개인의 예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앞서 3장 2항을 해설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예지(豫智)에 근거한 예정(豫定)을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미리 선택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나 행위를 정하여 놓으시고 어떤 이가 그러한 믿음이나 행위를 실행하는 자를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개혁신학의 예정론은 하나님이 누가 선택을 받을 것인지를 이들의 믿음이나 행동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각각 미리 정하셨으며, 그들의 수효를 또한 불변하게 한정하여 놓으셨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개혁신학의 설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와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혁신학은 알미니안주의자들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선택될 만한가를 미리 정하신 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보시고 그들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단지 선택될 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적인 특정한 사람 자체를 선택하신다는 것이 개혁신학의 이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인 3장 5항을 다룰 때에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개혁신학은 왜 택함을 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의 수효의 범위가 일정한 수로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 고자 합니다.

우선 선택과 유기에 대한 작정도 일반적인 다른 일에 대한 작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작정으로서 불변성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한 수효는 일정하며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설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반드시 그의 뜻대로 이루십니다.(사 46:10)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야곱과 예서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롬 9:11)

또한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도 약속과 이에 대한 맹세를 주셨으며 이러한 약속과 맹세는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의 성품에 따라서 확증을 하십니다.(히 6:17,18) 이처럼 구원과 예정에 관한 일도 하나님의 작정이므로 다른 일반에 관한 작정과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있을 환란에 대해 말씀을 하시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마 24:24)고 경계의 교훈을 주신 것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언뜻 생각하기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도 미혹을 당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일 그렇다면 택함을 받은 자들의 수효가 일정하며 불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는 잘못된 해석에 기초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 뜻하시는 바는 오히려 택함을 받은 자들이 미혹을 받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전제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점은 종말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공격을 할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한 데에 있습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를 “만일 하나님의 예정의 불변성으로 인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 넘어지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있을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위험에 대해 경계의 교훈을 주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계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은 베드로의 경우만 생각해 보아도 바로 힘을 잃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께서 잡히신 날에 닭 울기 전 세 번 주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후에 완전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 다시 회복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신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반론을 제기 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차피 다시 일어서게 될 베드로를 위하여 공연히 기도를 하신 것일까요? 베드로가 돌이킨 후에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 미리 작정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권면은 불필요하며 쓸모없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선택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불변적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경계의 말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들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짐 없어”

영생의 구원을 확신하고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확신과 기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애쓰는 경건의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자라도 거룩함을 좇으며 죄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는 신앙의 의무를 행하도록 하셨으며 또한 구원의 과정으로 성화의 길을 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3)

요컨대 선택의 불변성은 택함을 받은 자가 자기 멋대로 살아도 결국 필연적으로 그는 구원 받을 것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라는 목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은 결코 양립할 수 없거나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선택 받은 사실과 선택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 가하는 문제는 별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디모데후서 2:19은 선택의 확실성과 불변성에 대한 전거로 개혁신학이 제시하는 중요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지어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아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의 확실성을 말해 줍니다.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즉 택함을 받은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 편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앙의 의무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불의에서 떠나 거룩함을 좇는 자들이 되도록 보호할 것을 또한 암시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출 32:32) 여기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란 영원한 생명의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섭리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바라는 열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모세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에서 구하여 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한 모세는 정녕 자기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는 말로 자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로마서 9:3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말도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서 바울이 뜻하는 바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에서 끊어져 분리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일이 될 것이므로 참된 기도의 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성경

여러 곳에서 외친 구원의 불변성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의 말과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말한 것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동족들의 구원을 위한 자신의 간절한 열망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 변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을 누르고 있는 전 인류의 죄의 짐에 대한 그 엄청난 중압감에서 실제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더 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주님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지 극한적인 정신적 고통의 무게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짐이 없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 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빌 4:3),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계 13:8),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히 12:23)

또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5)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은혜의 사실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천사들과 사람들의 수효는 일정한 수로 한정되어 있으며 결코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등 변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글쓴 이 / 김병훈 목사(합신 조직신학 조교수) < 다음에 계속 >